

#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육아지원 거점기관 역할수행

### 48억원 투입·연면적 1천354㎡ 지상 3층 규모 사회복지법인 베타니아 복지재단서 위탁 운영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육아지원 거점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난달 30일 옹천동에 문을 열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개관식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정책에 발맞춰 권오봉 여수시장, 이찬기 여수시

의회부의장, 김중호 사회복지법인 베타니아 복지재단 이사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식으로 진행됐다.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비와 도비 14억원을 포함, 총공사비 48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천354㎡의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섰다.

1층은 체험놀이실과 육아정보나눔터, 시간제보육실, 2층은 장난감대여실, 3층은 다목적홀·교육실·프로그램실로 꾸며졌다.  
센터는 원스톱 육아지원 서비스의 중심축으로서 영유아 부모들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사회복지법인 베타니아 복지재단이 오는 2024년 10월까지 위탁 운영한다.  
주요사업으로 영유아 부모들의 건강관

양육을 돕기 위해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비롯해 일사천리 양육정보 ‘여수형 보육헬퍼’, 육아용품 나눔은행, 부모 교육 등을 실시하며, 정보가 취약한 농어촌 영유아를 위해 이동식놀이교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집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대체교사지원, 보육교직원 상담, 평가인증 컨설팅 교육, 교육종사자 교육 등을 돕게 된다.  
/여수=주영남 기자 jyn@



구례군의회가 최근 열린 제266회 임시회에서 이승욱 의원의 대표발의로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구례군 제공

##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의결 이승욱 의원 대표발의...행복한 지역공동체 구현

구례군의회(의장 김승식)가 최근 열린 제266회 임시회에서 이승욱 의원의 대표발의로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이승욱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지역 발전 과정에 여성과 사회약자의 참여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내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의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정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 성장과 안전구현 등 행복한 구례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로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받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해, 양성평등의 실현으로 구례군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앞장서게 됐다.  
/구례=심건식 기자 sgeonsik@

## 광양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5일까지 적극 전개

광양시가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일환으로 학교 개학 전인 4월 5일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보건소는 지난 2월 24일부터 진료(일반, 한방, 치과) 및 예방접종을 잠정 중단하고 선별진료소를 확대해 집중 운영하고 있으며,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도입해 의료진과 환자 접촉을 최소화해 진료의 효율을 높였다.  
또한 자체 복무 계획을 수립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차 출퇴근과 중식 시차제, 건강점검(1일 2회 체온측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읍면동 52코스 방역취약지와 면 소재지 내 희망하는 다중이용 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강화해 코로나 예방과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순천문화재단은 지난달 30일 지역문화진흥원과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 공동주관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허석 순천문화재단 이사장과 김영현 지역문화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10명이 참석해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 공동주관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순천시 제공

## 순천문화재단-지역문화진흥원, 업무협약

###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 공동주관 및 성공 개최

순천문화재단(이사장 허석)은 지난달 30일 지역문화진흥원과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 공동주관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과 순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으로, 순천문화재단과 지역문화진흥원은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 공동 기획 및 운영 전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축제 개최 성과 및 사회적·경제적 효과성 평가연구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에는 허석 순천문화재단 이사장과 김영현 지역문화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10명이 참석해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 공동주관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김영현 진흥원 원장은 “전국생활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지역 고유의 생활문화 특성이 반영돼 모두가 다 함께 누리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논의하는 공유와 교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석 순천문화재단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의 다양한 생활문화동호회의 기량과 경험을 공유하는 전국생활문화축제를 함께 주관하는 기회가 마련돼 기쁘다”며 “대한민국 생태문화도시 순천의 다양한 장점을 살려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는 올해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순천만국가정원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전국생활문화회원들 약 1만여 명이 참가해 전국 각 지역의 다양한 생활문화를 공유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오승택 기자 ost6002@

## 곡성,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5월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하 ‘꾸러미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신규 시범사업으로 공모한 것으로 곡성군이 꾸러미사업에 선정돼 추진하게 됐다. 꾸러미는 전남에서 생산한 농산물(쌀, 신선채소, 미역 등), 축산물(소고기, 달걀) 및 유기가공식품 등 가격대별 꾸러미 8종, 3~6만원 상당으로 구성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몰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농약과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은 다양한 꾸러미를 선택해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또 자부담 9만6천원(월 8천원)을 내면 농협몰 포인트 48만원을 배정받아 출산 전후 영양 공급이 취약한 임산부와 아이를 위한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1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임신부와 출산 후 12개월 이내 산모로 곡성군의 경우 100여 명 내외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곡성군은 오는 4월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며, 출생신고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지원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된다. 단, 현재 기존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이하 임산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곡성=심선섭 기자 sss2634@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